

[종합·해설]

■ 남북장관급 회담 이틀째 표정

미사일 사거리 만큼 南-北 멀어지나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2일 남북 대표단은 서로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을 삼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북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확인했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남측은 북측이 국제정세를 오해하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수차례 주문한 반면, 북측은 외세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키우고 민족 공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 엇갈리는 시각차와 분위기를 가능케 했다.

미사일과 6자회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남측 의지가 무색하게 북측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동안 주장했던 사항들을 재차 요구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남측 대표단은 예상대로 기초발언의 대부분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한 유감과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기초발언에서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가져온 부정적 결과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앞으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하는 한편 미사일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틀은 6자회담으로, 회담에 복귀하는 길이 북측에도 이익이 된다고 설명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면 금융문제를 포함한 북측의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 남측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북측 권호웅 내각책임참사 등 남북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추가 발사 안돼"… 6자회담 복귀 촉구 북 "선군정치 南을 위한 것" 엉뚱한 주장

그러나 북측 대표단은 기초발언에서 미사일 발사나 6자회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그동안 주장했던 정치·군사·경제 분야에 걸친 이른바 '3대 장벽' 철폐를 다시 거론하는 한편 쌀 차관 제공과 경제공업 원자재 제공을 요구했다.

북측은 상대방의 성지에 대한 제한없는 방문, 외세(미국)와의 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해 12월 17차 회담에서 제기한 이른바 '3대 장벽' 제거를 재차 거론한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게 없다는 분석이다. 8·15 통일대축전에

남측 당국 대표단을 초청하고 추석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을 열자고 제의한 것도 시기에 맞춰 매년 해오던 이벤트다.

북측은 미사일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대신 선군(先軍)정치를 언급하며 마치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이 남한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 남측 대표단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처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선군정치를 운운하며 남한을 위한 것이라 주장한 점에 비해 북한의 실제 주장이 뒤집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져 회담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 청문회

12일 열린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소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의에 이렇듯 현행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쇄도한 것이다. 먼저 인위적 경기부양을 끊겠다는 정부의 거

"거시정책 기조 바꾸라" 질타 이어져

시정책 기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인위적 경기부양을 안 한다는 거시정책기조를 바꾸라"고 불을 댕기자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짜맞추기라도 한 듯이 일제히 가세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장은 "잘못이 없으니 그대로 간다는 식은 안되며, 해

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지방선거 패배의 중요한 원인은 경제상황에 대한 실망이며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우재창 제3조위원장도 "정부를 보면 너무 안이하다"며 "5·31 지방선

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여부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권 내정자의 서면답변 내용을 문제 삼으며 "자산규모 70조원의 은행을 사모펀드에 파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다그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예산·현안사업 적극 지원"

취임 첫 행보 여수찾은 강재섭 한나라 새 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신임 대표는 12일 "당을 떠나 호남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과 현안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로 전남을 찾은 강 대표는 이날 오후 도로 철거지가 붐비던 여수시 호명동 태풍 '예위니아'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여수시와 전남도 관계자들로부터 태풍 피해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어제 전담대회를 마치고 가슴으로 다가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

을 전해 주고 싶어 제일 먼저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은 아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예산 지원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표는 "삼승 침수로 매년 여수 연등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구사업에 필요한 240억원의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곳 국도 77호선 철거지 붕괴 복구비 25억원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보수-진보 아우르는 생활정치 실현"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최인기(나주·화순·사진) 의원의 12일 민주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혁은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 삼아야 하나 개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오토만 여론에 대해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했다"며 "민주당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국민들이 다가갈 수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한 정계 개편과

관련 "민주당은 우선 자강론을 통해 힘을 기르는 한편 중도개혁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의 결집을 유도한 다음,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정권창출에 나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성군의회 의장 김철우씨

보성군의회는 제137회 임시회를 열고 제5대 전반기 의장에 민주당 김철우(42·사진)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이국성(57)의원을 각각 선출 했

다. 보성군의회가 원구성을 마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기초의회는 모두 원구성을 끝냈다.



/보성=안우일기자 giahn@

Advertisement for 'Sanhaeng Anae' (산행안내) featuring a grid of 24 small ads for various medical services, including eye care, dental, and general medicin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Large advertisement for 'Bentlax Gel' (헝터 혼적을 지우자!) for hemorrhoid treatment. It features large text, images of the product, and a list of symptoms treated: '상처로 인한 헝터' (hemorrhoids from injury), '수술로 인한 헝터' (hemorrhoids from surgery), and '화상으로 인한 헝터' (hemorrhoids from burns). The ad claims to be a 'Bentlax Gel' product for hemorrhoid treatment.